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1 장.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싼 전투

(... 중략...)

이 책의 I부와 II부는 디지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왜 정보생산과 교환 모델을 잠재적으로 전환시키는 섭동(perturbation)을 초래하는가를 설명했으며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패턴의 창발이 기존의 산업적 정보경제와 어떻게 다른가에 중점을 두었다. 11장에서는 법과 정책이 어떻게 전투의 장으로 이끌려 나와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가를 상세하게 다루겠다. 거시적으로 보면 새로운 추동력을 억제하려는 법률들이 도입되어도 디지털 컴퓨터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은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의 형태를 둘러싼 논쟁과 전투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모든 경우는 아니라도 대부분 이 전투들은 자기의식적이다. 더 중요한 점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는 개발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실행을 구체화하려는 다양한 활동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생태의 구조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법이 어떻게 다양한 단계별로 정보의 이용, 생산, 교환에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겠다. 첫째 사례는 7장에서 이미 소개한 비시장 동료생산 모델에 기반한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가 전자 투표기계의 제작사 다이볼드(Diebold)의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다이볼드사의 파일들을 온라인에 공개하자 다이볼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주장하면서 학교들이 나서서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기여침해 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을 물어서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생들은 서버에 올려진 파일을 어쩔 수 없이 삭제했다. 그러나 자료 파일이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타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파일들을 미러(mirror: 동일한 복사본을 유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동키(eDonkey), 비트토렌트(BitTorrent), 프리넷(FreeNet) 등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업로드했다. 법원은 자료 파일을 온라인에 출간한 행위는 상당한 공익적 가치를 지녔고 상업적 의도도 없었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어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자료 파일의 공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정보의 도관(導管, conduit)을 제공했을 뿐이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때는 2004년 9월 30일이었고 캘리포니아주 투표장비 인가심사는 이미 끝나버린 뒤였다. 다이볼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사람들이 널리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정당성을 해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소송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료 파일들을 공론장에 보존했기 때문이었다. 초기 자료들은 2003년 초반 열성적 활동가가 공개했다. 초기의 자료 파일을 온라인에 출간했던 웹사이트 스쿱(Scoop.com)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향해서 자료 파일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이볼드 전자투표 시스템의 결함을 밝혀달라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자료 파일들을 읽는데 필요한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게시했다.

그러나 다이볼드 이야기에는 실패의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었다. 위태로운 순간들이 닥쳤을 때 자료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막혀버리거나 동료생산 방식의 저널리즘은 불가능할 뻔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첫째, 만일 대안적 물리적 전송 시스템이 전혀 없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 뿐이었고, 다이볼드의 소송제기 협박에 굴복하여 접근을 차단했다면 자료 파일은 다수에게 공개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자료 파일의 배포에 사용된 P2P 네트워크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덮어썼으며(overlay), 사실상 파일들을 삭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P2P 네트워크에는 차단이 가능한 저장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다이볼드측에서 해당 자료 파일을 삭제하려고 다른 대학들을 위협하는 일은 무의미해졌다. 셋째, 자료 파일 중에서 평범한 텍스트가 아닌 파일들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었다. 스쿱닷컴은 인터넷에서 유틸리티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위치를 제공했다. 자료 파일들이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더 많은 비판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넷째, 원본 자료파일의— 이메일의 형태— 공개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지자, 법적 책임을 부담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실행되던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두번째 사례는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법적 조작(legal manipulation)을 지렛대로 이용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무렵 스웨덴의 한 비디오 아티스트는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가 출연했던 뉴스 보도(news footage)를 편집하여 비디오를 만들었다.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와 리오넬 리치(Lionel Richie)가 부르는 발라드 곡 “끝없는 사랑”(Endless Love)의 가사와 그 뉴스의 영상에서 따온 두 정치인들의 입술 모양의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세심하게 편집된 비디오였다. 부시가 리오넬 리치의 가사를 부르고, 블레어가 다이애나 로스의 가사를 부르면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의 연가를 보내는 식이었다. 이 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어떤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다이볼드 사건에는 없던 요소들이 두 가지 존재했다. 첫째, 이 이야기는 비디오와 음악을 인용(quotation)하려면 사실상 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텍스트와는 달리 이미지나 사운드는 문자로 간단하게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암호화가 되지 않은 비트(encrypted bits)의 이용은 텍스트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노래 전체를 수정하지(modify) 않은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 스웨덴에서 제작된 이 비디오가 영어권 상업용 음반 시장을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 비디오에는 노래나 뉴스 영상의 패러디로 여겨질만한 요소들은 없었다. 이 비디오는 “기초적 자료들”(found materials)을 충분히 활용했다. 누군가가 이미 만든 자료들을 놀랍도록 창의적 방식으로 섞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발언을 창조했던 것이다.¹ 그러나 디지털 샘플링(digital sampling) 이용을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실무 관행은 불과 2, 3초의 반복적 선률(riff)만 사용하는 경우조차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이 없었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다룬다. 그런데 이 비디오는 원곡의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앞의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창의적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수적 자원들에는 시장 모델로 생산되든 비시장 모델로 생산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현존하는 정보, 문화적 생산물과 커뮤니케이션, 지식구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콘텐츠”(content)다. 콘텐츠는 앞에서 언급한 노래, 비디오 영상, 이메일 파일도 포함된다. 둘째, 창의력, 지식, 정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역량(창작자의 새로운 발언과 커뮤니케이션)을 획득하고, 조작하고, 수정하고, 소통하는 기계적 클러스터(cluster of machinery)도 필요하다. 기계적 클러스터에는 학생들, 비디오 아티스트, 독자들, 시청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물리적 장치들과 다른 장소로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기 위한 물리적 전달 메커니즘(physical transmission mechanisms)도 포함된다. 앞의 사례에서 다이볼드사는

¹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2004 U.S. App. LEXIS 26877.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스와츠모어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계적 저장공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려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다. “기계장치”(machinery)에는 텍스트나 음악을 얻고, 읽고, 듣고, 잘라내고, 붙여넣고, 재창작하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찾고, 소통하는 소프트웨어와 프로토콜 등 논리적 구성요소들(logical components)도 포함된다.

두 가지 이야기가 시사하듯 창작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기계적 장치, 프로토콜, 정보, 문화적 자료 등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가 필요하다. 구성요소들과 관계의 다양성은 정보 생산과 정보 교환의 제도적 생태를 복잡하게 만든다. 다른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정책적 요소들도 복잡한 제도적 생태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에 포함된다. 규제적, 정책적 요소들은 다양한 법적 원칙들과 전통에서 도출된 것이며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이론과 실행에 의존한다. 양자는 서로 동떨어져 보이지만 대역폭(bandwidth),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자료의 공유와 소비에 대한 사회규범도 제도적 생태를 이루는 규제적, 정책적 요소에 포함된다. 다양한 제도적 생태의 구성요소들을 단일한 문제로 인식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 나는 매개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기능을 세 단계의 층위로 나누어 간명한 설명을 제시해 왔다. 세 단계의 층위들은 각기 다른 제도적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펼치고, 기본적 질문들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기본적 질문들이란 “누가 어떤 말을 하도록 만드는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등이다. 이런 기본적 질문들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내재된 규범적 특성들을 정의한다²

세 단계의 층위들은 물리적 층위(physical layers), 논리적 층위(logical layers), 콘텐츠 층위(content layers)로 나누어진다. 물리적 층위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물질적 요소들(material things)로서 컴퓨터, 전화기, 휴대기기들, 전선, 무선 링크가 물리적 층위의 사례들이다. 콘텐츠 층위는 사람들이 발화(utterances)를 통해 서로에게 전달하는 인간적으로 의미있는 표현들(meaningful statements)을 뜻한다. 콘텐츠 층위는 필터링, 인정, 해석 등과 같이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아니며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하는 실제 발화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논리적 층위는 알고리즘, 기술 표준, 인간의 표현과 행동에 담긴 의미(human meaning)를 기계가 전송하고 저장하고 연산하도록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의미로운 소통으로 전환시키는 기계적 처리과정을 뜻한다. 논리적 층위의 범주에는 기술 표준, 프로토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운영 체제 등의 기반 플랫폼(enabling platforms)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s)도 모두 포함한다. 매개된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층위를 모두 다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각 층위는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거나 경유하는 경로와 자원에 해당한다. 각 층위에서 창발하는 기술적, 실행적 역량들은 각 층위 마다의 구성요소들을 비전유적 모델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비전유적 모델은 적은 비용으로 기초자원을 활용하게 해주고 타인(단일 주체나 집단)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비전유적 모델이나 오픈 플랫폼 기반의 사회적 실행들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² 층위에 기반한 추상화(layer-based abstractions)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효과적으로 설명을 제시했다. Lawrence Solum and Minn Chung, *The Layers Principle: Internet Architecture and the Law*, University of San Diego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55.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Reference) 모델은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와 통신을 7개의 층위로 나눈다. 그런데 이 논문은 OSI를 더 긴밀하게 잘라내어 특정한 범원칙에—필요한 이상으로 낮은 수준의 층위에서 규제해서는 안된다—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명을 제시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어떤 특정한 규율(rules)을 제약하는 도구(tools) 기능하는 높은 수준의 층위(a higher-level abstraction)를 찾기보다는 사회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방식에 대한 기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배치(map)를 모색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이 각 층위에서 오갔다. 거시적 효과에서 보면 정보환경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자원들과 필수적 역량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전유적, 비시장적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전투들이 모든 층위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논리적, 콘텐츠 층위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은 거의 예외 없이 특정한 지역적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하면 주파수 관리(spectrum management)를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 정책은 CD 판매량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네트워크 정보생산의 사회적, 경제적 실행이 창발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공간이 남겨져 있는가?”이다.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핵심적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데 기존의 정보와 문화, 새로운 공헌, 혼합적 생산을 처리하고 저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계적 수단들, 이런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시스템이 그것이다. 비시장 형태의 생산은— 생산 자체가 시장에 기반하든 전유권에 기반하든 무관하게—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핵심적인 공유 인프라(common infrastructure)을 필요로 한다.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경향의 궤적은 핵심적 공유 인프라의 창발과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실행을 선도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실행은 공유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 이를테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무선 장비 제조사들은 이용자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치들을 생산한다. 인터넷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오픈 이노베이션 정신은 프리 소프트웨어와 전유적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바탕이다.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 모두는 개방형 논리적 층위에 공급되는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을 채택하고 있다. 이 책이 다루는 논쟁은 정보·지식·문화를 무료로 공유하는 새로운 실행의 창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보·지식·문화를 공유하는 실행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가능하도록 개방된 콘텐츠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콘텐츠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핵심적 공유 인프라는 규제적 조치 없이도 창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형태가 안정된 패턴일 수 있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여 불과 두어 개 회사들이 소수의 핵심기술들(critical technologies)을 사용하여 병목점을 지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규제적 개입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집필하는 2005년 중반까지 법은 반응적(reactive)이었으며, 사회적·정치적 진보에 반작용적인(reactionary) 역할을 수행하면서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에 저항점으로 작용했다. 산업정보경제의 세력들은 네트워크 정보환경이 초래하는 위협을 억제하고자 법을 동원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규범적 보호가 아니라 규범적 절제(regulatory abstinence)를 필요로 한다.

이제 물리적, 논리적, 콘텐츠 층위에 내려진 정책적 결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결정들이 어떻게 시장 기반의 전유적 거래구조(transactional frameworks)를 거치지 않고서도, 개별적으로 그리고 타인들과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제도적 생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은 서로 뒤얽혀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으므로 분석적 토론을 위해 일단은 분류별로 살펴본 이후에 전체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일목요연한 설명을 위해서 표 11.1에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모아서 정리해 두었다. 1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요약하자면, 제도적 환경의 형성을 둘러싼 전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제도적 선택들에 뒤이어 상호작용이 이어지므로 정보생산과 공유에 사용되는 기초자원의 분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점이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